

채팅의 ‘의미 함정’ 현상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근

신 명 선*

<차 례>

1. 서 론
2. ‘의미 함정’의 개념과 채팅 참여자의 특성
3. 채팅에서 발생하는 ‘의미 함정’ 현상
4. 채팅의 ‘의미 함정’ 현상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근
5. 결 론

1. 서 론

그 동안 국어국문학 및 국어교육학계에서 채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언어’ 그 자체의 특성에 집중되어 왔다. 통신 언어¹⁾에서는 비언어적 단서 즉 얼굴 표정이나 고개의 끄덕임과 같은 것들의 결여를 극복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한다거나²⁾ 표준어 및 맞춤법의 오용이 심하다든가³⁾ 통신 언어 예절이 형편없으므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논의

* 세종대학교 강사

- 1) 통신 언어라는 개념이 상당히 가변적이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 전반을 가리키기도 하며 채팅에서 사용하는 용어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앞으로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단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도록 한다.
- 2) 임철성(2000), 임규홍(2000), 권순희(2001), 이정복(2001) 등
- 3) 매스컴에서도 채팅 언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드러낸 연구도 상당하다. 대표적인 연구로 윤희수 외(2002:348-349)를 들 수 있다.

등⁴⁾이 그것이다. 아직까지 채팅 언어 그 자체를 넘어 채팅의 의사 소통 상황과 그 방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채팅은 문자적 기호에 의한 동시적, 즉각적, 비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종류의 의사소통이다. 인류는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의사소통 수단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일상 대화’와 같은 구어적 의사소통과 ‘글쓰기’와 같은 문어적 의사소통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장르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어, 동시성, 즉각적 피드백,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문어, 비동시성, 지연적 피드백, 비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양분법적 논리는 이미 깨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채팅의 의사소통 방식의 특징은 그 자체로 훌륭한 탐구 대상이다. 더구나 오늘날 채팅은 이미 학생들에게 대인 의사소통의 한 가지 방식으로 자리를 확고히 잡았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적 연구의 필요성도 높다. 6차 『국어』 교과서가 통신 언어를 한 단원으로 다룬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채팅의 의사소통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채팅의 의사소통 상황 ‘의미 함정(semantic trap)’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채팅에서 발생하는 ‘의미 함정’ 현상의 분석과 그 국어교육적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채팅 자료는 2003년 2월 15일부터~3월 15일까지 세이클럽(sayclub)과 프리챌(freechal) 사이트에서 갈무리를 통해 얻은 것으로 A4 용지로 60장 정도이다. 사이트에 가입할 때 제공한 성별과 대체적인 나이 정보가 밝혀진 참여자들의 채팅으로 한정했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10대에서 30대에 속했다. 사이트에 가입할 때 적는 성별과 나이 정보는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또한 친구 사귀기와 같은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첫 만남 관계의 경우로 한정했다. 이미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 숙제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오택섭 외(2002)에서는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4) 이승후(2002) 등

(CMC : computer - mediated communication)을 하는 목적을 조사한 바 있다. 오택섭 외(2002)에 의하면 그 목적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거나 자극과 흥분,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개인 내부의 욕구가 가장 컸다(20.9%). 제 2요인은 사회적 욕구로 동호회 활동이나, 사람 사귀기 등 사회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17.4%). 한편 이진(1996)에서는 통신을 이용하는 주 목적이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62%), 심심해서 소일거리로(26%), 정보를 얻기 위해(5%)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잡지 <이미지>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대화방을 찾는 제1요인은 ‘폭넓은 대인관계’로 드러났다(박기순, 1997:407에서 재인). 이러한 조사들은 채팅을 하는 주 목적이 친교에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정리하면, 본고의 연구 대상은 1) 자신의 성별과 대체적인 나이 정보를 밝히고 2) ‘친구 사귀기’ 등과 같은 친교적 목적을 갖고 하는 3) 첫 만남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에 한정된다. 따라서 음란 채팅이나 상업성 채팅, 토론식 채팅 등은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2장에서는 먼저 ‘의미 함정’ 현상의 개념과 채팅 참여자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채팅에서 발생하는 ‘의미 함정’ 현상 분석의 기준을 명료화하도록 한다. 3장에서는 채팅에서 발생하는 의미 함정 현상을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4장은 그 국어교육적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2. ‘의미 함정’의 개념과 채팅 참여자의 특성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언어와 실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는 일찍이 Richards & Ogden(1959:36)의 의미 삼각형에서 지적된 바 있다. 언어와 실체가 갖는 간접성은 인간의 지각이 갖는 불완전성과 더불어 언어의 한계를 유발하는 요소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는 우주 만물의 실체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만을 인식한다. 그리고 언어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지도처럼 현실 그 자

체는 아니다. 언어가 갖는 이러한 한계는 기호학(semiotics)의 주요 테제이기도 하다.

언어가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치 중의 하나는 '범주화' 및 '분류화'이다. 인간이 어떤 대상을 'X'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X'라는 언어 세계가 갖는 범주 속으로 함몰된다. 의자인지 탁자인지 알 수 없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그것을 내가 어떤 범주에 넣어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느냐를 묻는 것과 같다. 그것이 '의자'라고 규정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의자'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범주 속에서 이해한다. 그 과정은 실제 그 '의자'와 정확히 일치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범주화와 분류화는 현실을 이해하는 용이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로 명명화된 대상을 언어의 범주 내에서만 이해하면 실체와 당연히 거리가 생기게 된다. 예컨대 누군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검사'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검사'라는 범주 속에 넣어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그 사람은 '양아치'라고 불리는 사람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발라 뒤로 넘기고 가죽 잠바에 빨질 빨질한 빨간색 양복 바지를 즐겨 입고 가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처럼 어떤 대상을 그 실체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부여하고 있는 언어적 코드(code) 속에서만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을 의미 함정(semantic trap)이라고 부른다. Mayers & Meyers(1985:7장)에 의하면 의미 함정 현상은 어떤 대상을 대상의 실체와 상관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범주 내에서 이해하는 현상으로 표백 효과(blurring effect), 즉 대상의 실체를 흐릿하게 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우리가 의미 함정 현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것이 종종 의사소통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실체를 살펴보고자하기 보다는 상대를 명명하는 전형화된 틀에 끼워 맞춰 '자기의 방식대로' 상대를 이해한다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한 틀에

따라 의사소통 하는 사람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거나⁵⁾ 단정하거나⁶⁾ 평가하는 말을 잘 사용하고 관찰과 추론을 혼동하는(Meyers & Meyers, 1985:7장)’ 등의 경향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의미 함정’에 사로 잡혀 있다.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의미적 세계에 근거해서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미 함정 현상의 결과로 지적되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 단정, 평가를 위한 평가, 추론과 사실의 혼동’ 등도 반드시 의미 함정에만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의사 소통에 ‘의미 함정’ 현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채팅에서 발생하는 의미 함정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의미 함정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미 함정’ 현상으로 보도록 한다. 첫째,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나이⁷⁾, 성별, 사는 곳, ‘하는 일(선생님, 의사, 고등학생, 검사, 강패, 날라리 등)’ 등에 근거해 일정한 범주 안에서 파악했음이 명확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한다. 둘째, 그러한 파악의 결과(범주화)로 그 사람의 행위나 말에 대한 일정한 판단 및 단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그러한 판단 및 단정의 결과가 의사소통 장벽(communication gap)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장벽은 의사 소통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간단하게 정의하도록 한다.

첫째 조건에 의해, 우리는 일단 의미 함정 현상이 상대의 성별, 나이,

5) 우리는 누군가를 ‘선하다-악하다’, ‘인색하다-너그럽다’, ‘정직하다-정직하지 않다’와 같은 식으로 이해하기 쉽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때 의사소통에는 장벽이 생긴다.

6) ‘학생들은 공부하기를 싫어한다’, ‘흑인들은 모두 리듬 감각을 가지고 있다’, ‘정치가들은 모두 사기꾼이다’와 같은 단정적인 말

7) 나이(age)가 채팅 시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나이별 대화방이 따로 신설된다는 점은 타국과 다른 독특한 한국적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이건, 1996; 박기순, 1997:407에서 재인). 예컨대 영미권에서는 낯선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나이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 소개는 첫 만남 대화의 중요한 절차로 자리잡고 있다.

사는 곳, 하는 일 등에 근거해서 상대를 일정한 범주로 분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주목하도록 한다. 의미 함정 현상은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범주화 및 분류화의 대상이 상대, 즉 인간에 한정된 경우만 살피도록 한다. 첫 만남을 갖는 채팅의 경우 처음에 자신의 성별, 나이, 사는 곳, 직업 등을 밝히는데, 그 때 밝힌 것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보고 상대의 실체와 상관없이 상대를 자신이 갖고 있는 범주 내에서 '자기 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한다. 예컨대 '30대, 남, 의사, 강남'(채팅에서는 이처럼 자신의 신상 정보를 명사형으로 간단하게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과 같은 정보에만 근거해서 상대를 일정한 범주에 끼워 맞추려는 경향에 한정한다. 둘째 조건은, 그러한 범주화 및 분류화가 반드시 언어화되어야 하고 특히 상대에 대한 판단이나 단정적 표현으로 나타난 경우에 한정함을 의미한다. 셋째 조건은 상대의 실체와 상관없이 상대를 이해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 보도록 한다. 우리가 '의미 함정' 현상을 문제 삼는 것은 이 현상이 의사소통의 장벽으로 기능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의미 함정 현상은 세계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이 되기도 하므로, 경우에 따라 원활한 의사소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특히 의사소통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의미 함정'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상대와 상관없이 단정적인 표현이나 평가를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 상대에 대한 잘못된 범주화 및 분류화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어화되지 않은 경우, 또 상대를 '자기 식대로' 판단하였음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는 어떤 징표도 보이지 않아 의사소통 장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우리가 의미 함정 현상이 발생하는 주 영역을 '상대' 즉 '인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채팅 이용자들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에서 '정체성'의 문제는 '익명성'과 맞물려 중요한 논의거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의

연구들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조작하기 때문에 채팅을 통해 진실한 대화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알렉스라는 남성이 인터넷에서 ‘장애를 가진 조앤이라는 여자 의사’로 가장하여 활동한 사건이다.⁸⁾ 재미있는 점은 알렉스가 인터넷 상에서 자기 자신과 조앤을 결코 혼동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알렉스는 ‘장애를 가진 여자 의사’의 모습을 ‘자기 식대로’ 상정한 후 그러한 여자 의사가 행할 만한 행동과 말을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 그와 채팅을 한 어떤 사람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앤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조앤’을 살려내 달라고 호소했다. 조앤이라는 인물은 ‘의미 함정’ 현상이 빚어낸 일종의 변종인 셈이다. 알렉스는 자신이 갖고 있는 범주화 및 분류화에 근거해 ‘장애를 가진 여자 의사’를 창조해 냈고,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여자 의사의 모습을 자연스럽다고 그럴 듯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인터넷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속이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범주화에 근거해 자기 자신을 창조해 낸다. 일명 페르소나(persona)⁹⁾라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그러한 현상이 빚어낸 결과이다.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을 속인 채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자기가 갖고 있는 범주화에 근거해 의사소통을 한다. 상대방 역시 자신이 갖고 있는 범주화에 근거해 상대를 판단하면서 의사소통한다. 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주화에 근거해 행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가 위에서 설정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의미 함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의미 함정’ 현상은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¹⁰⁾

8) 정체성과 기만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Smith & Kollock(1999)을 참조할 수 있다.

9)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상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을 일컫는 말.

10) 일단 본고에서는 참여자 정보가 어느 정도 밝혀진 채팅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와는 다소 차별화된다. 그러나 설령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본고의 논의를 크게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예처럼 이러한 경우에도 참여자들은 자신

그러나 채팅을 하는 목적이 친구를 사귀는 등 친교에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려는 경향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자신의 정보를 밝히지 않으면 대화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참여자들이 미리 기술적 장치를 해 놓는 경우가 많다.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채팅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적는 자신의 신상 정보는 사실인데 이를 밝히도록 조치해 놓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아바타 대신에 자신의 실제 사진을 아바타로 제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더욱이 친교가 주목적일 경우 사람들은 온라인에서의 만남을 오프라인의 만남으로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을 솔직하게 밝히는 경우가 많다.

권혁남 외(1998:109)에 의하면 PC 통신과 인터넷이 도입됨으로써 장기 지향성이나 열린 마음, 흥미진진한 삶 등과 같은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성향과 책임감 등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컴퓨터라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정확한 것, 확실한 것을 더 가치롭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채팅을 하는 주 대상자가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으며¹¹⁾ 채팅을 하는 주목적이 정서적 욕구 충족에 있는 만큼 이들은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더구나 젊은 층에 속하는 이들은 대부분 컴퓨터 매개 의사 소통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 Trevino & Webster(1992)는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충만(flow)'이라는 개념을 도출해 냈다. 충만(flow)이란 어떤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즐겁고 탐사적인 것으

들이 갖고 있는 범주화에 근거해 의사소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11)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 급속히 늘고 있다. 이현우(1997)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당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14.1시간인데 이중 PC 통신(즉 채팅)에만 7.8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한다(1997년은 우리 사회에서 일명 '채팅 바람'이 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 2003년 현 시점에서 조사를 하면 수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반인의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인 3.1시간(소비자 프로파일 연구 협의회, 1996)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 계층은 20~30대의 성인 남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

로 여기는 이용자의 인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연장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을 더 편하고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서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쉽다고 느껴지면 이용자들은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소현진, 1996:23에서 재인). 특히 충만감은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호작용 그 자체가 본래적 목적이 될 때 극대화된다(박희정 외, 2002:80). 이런 점에서 상호작용 그 자체가 목적인 채팅은 이용자들에게 충만감을 주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음란 채팅이나 상업성 채팅이 아닌) 단순히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채팅의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 정보를 밝힌 사람들이 채팅을 할 경우에는 상대를 신뢰하는 경향이 높고 젊은 층의 경우 채팅을 통해 ‘충만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장에서 설정한 의미 함정의 판단 조건을 중심으로 채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미 함정 현상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3. 채팅에서 발생하는 ‘의미 함정’ 현상

상대방의 신원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Charles Berger를 중심으로 주장된 불확실성 감소 이론(Uncertainty reduction theory)에 의하면 ‘불확실성(uncertainty)’이 관계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불확실성이 감소할수록 관계는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채팅에서 성별, 나이, 사는 곳, 직업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려는 성향은 자연스럽다.¹²⁾

12) 이는 또 다른 관계 의사소통 이론인 자아 노출(Self-Disclosure) 이론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지된다.

그런데 채팅의 경우, 이와 같은 신상 정보는 오직 언어에 의해서만 표현된다. 면대면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는 상대의 외모, 옷차림, 얼굴 표정, 이야기 하는 자세, 목소리 톤 등 기타 외적 정보에 의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 채팅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채팅 참여자들은 오직 '30대, 남성, 의사, 강남'과 같은 언어적 표현 그 자체에 의존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강남에 사는 30대 의사 남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부여하고 있는 언어적 코드가 상대의 실체와 상관없이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판단은 상대의 개별적인 특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어의 사회적, 심리적 의미에 의해 드러나는 보편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상대의 실체와 상관없는' 언어에 의한 범주화의 결과이다.

예1) 잠잠자자: 20대, 대학생, 여, 신촌...

잠잠자자: 님도~, 자기 소개... ^^*

피곤스: 30대, 남, 의사, 강남

잠잠자자: 우와~, 멋진 사람 같당... ^^

피곤스: 뭘요~ 오늘 당직인데 졸려 죽겠네요.

잠잠자자: ㅋㅋㅋ 난 거의 불면증인뎡... ^^

예1)을 보면 '잠잠자자'는 '피곤스'의 자기 소개가 끝나자 곧바로 상대의 실체와 상관없이 상대를 '멋진 사람으로 단정하고 있다. 재밌는 것은 '피곤스'가 '뭘요'라고 대답함으로써 상대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대화에서 '잠잠자자'는 '피곤스'가 '깔끔한 서구적 성격에 능력 있고 돈이 많은 멋진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강남에 사는 30대 의사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한 의미 함정 현상의 예이다. 즉 '잠잠자자'는 '피곤스'의 실체가 어떤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기보다는 '30대, 남, 의사, 강남'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심리적 의미에만 근거해 상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위의 대화에 이어 곧바로 늦은 시각이라 배가 고프다는 대화가 이어

졌는데 ‘잠줍자자’는 ‘피곤스’가 ‘양식을 좋아할 것 같다’고 단정하고 돈가스가 맛있는 음식점을 추천하면서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물었다. 이어 ‘잠줍자자’가 ‘피곤스’는 여자 친구가 생기면 근사한 음식점에서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 줄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피곤스’가 레지던트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고 물으면서 자신은 양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님, 죄송하지만 저 나가 봐야겠네요. 환자가 있어서리...’라며 곧바로 대화방을 나가버렸다. ‘잠줍자자’가 ‘피곤스’에 대한 갖고 있던 범주화의 결과가 ‘피곤스’의 실체와 다소 거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예2) ‘오직나’: 굿모닝~~~

eunice: 아바타뒤로 번쩍이는 각테일바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ㅋㅋ¹³⁾

‘오직나’: <<< 날라리~~

eunice: 노래가 안나오는것 같은데...한곡 틀어주실라우? :)¹⁴⁾

eunice: 날라리가 저리 암전하게 서있지는 않을텐데..어설픈 날라리신가
부넵

위의 예는 20대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화방에서 발췌한 것이다. 위의 예를 보면 ‘eunice’는 ‘오직나’에게 존대말을 쓰다가 ‘오직나’가 자신을 ‘날라리’로 소개하자 곧 바로 ‘한곡 틀어주실라우?’처럼 반말을 쓰고 있다. 이 표현은 ‘날라리’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범주화에 근거해 상대를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eunice에게 ‘날라리’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며 ‘암전하게 서 있지는 않’은 대상인 것이다. 적어도 ‘eunice’는 상대의 실체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날라리, 20대, 남성, 서울’에 대한 언어적 표현에 근거해 상대를 범주화시키려 하고 있다. ‘오직나’는 자신을 ‘날라리’로 소개함으로써 편안하고 즐거

13) 이 말은 상대의 아바타의 모습에 대한 반응이다.

14) 최근에는 채팅창에 채팅 참여자들끼리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운 대화를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eunice가 갑자기 반말을 쓰자 기분이 나빠진 듯하였다. 이 때문에 eunice의 반응에 대해 ‘오직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이는 ‘오직나’와 eunice 사이에 의사소통의 장벽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eunice는 여전히 상대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날라리가 저리 얌전하게 서있지는 않을텐데..어설픈 날라리신가부넹’라고 응대하였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의사소통은 10분을 넘기지 못하였다.

다음의 예도 비슷하다.

예3) 예씨어: 난 왜 이렇게 걱정되남....

Iwannabe: 푸후

Iwannabe: 선생님들이 학생걱정하는거같네..

‘예씨어’의 직업은 ‘선생님’이다. ‘예씨어’가 개인의 잡다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걱정이 된다고 하자 Iwannabe는 웃으면서 곧바로 ‘선생님들이 학생걱정하는거같네’라고 응수하고 있다. 이후에도 Iwannabe는 ‘예씨어’의 모든 행동을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에 비추어 해석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Iwannabe’는 선생님을 ‘비교적 착하지만 고리타분하고 무엇인가를 시키기 잘하는 사람’으로 범주화시키고 있었다. 이 때문에 Iwannabe는 ‘착하기만 하면 살기어렵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둘 사이에 의사소통의 장벽이 나타났다.

예4) Iwannabe: 결혼하면 남편한테 넘 시키지 말아요...ㅋㅋㅋ...

Iwannabe: 애도 아니니까...

예씨어; 제가 막 시키고 그럴 것 같아요?

Iwannabe: 아니..뭐... 학생들이 다...

예씨어: 난 그런 성격 아닌데...

Iwannabe가 상대의 실체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거나 알려주는 일을 주로 하며 따라서 결혼한 뒤 ‘예씨어’도 남편에게 그럴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문제였다.

역시 의미 함정 현상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 함정 현상은 많은 채팅 자료에서 발견되었다. 다음 예에서 ‘폭발1초전’은 ‘영업’일을 하는 회사원이다. ‘다다다’는 폭발1초전의 실제 모습과는 상관없이 폭발1초전이 영업 쪽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폭발1초전은 술과 담배를 많이 하며 술을 자주 사 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예5) 폭발1초전: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사람이겠지요

quit: 그럼요

다다다: 폭발1초전님은 술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폭발1초전: 아니ㅇ요 잘해주는 사람이겠조

다다다: 폭발1초전님은 틀림없이 술이랑 담배 많이 할 것 같아... ^^

다다다: ^^

폭발1초전: 담배는 안하고

폭발1초전: 술은 좀 해요

다다다: 아,,의외...

위의 예에서 특히 ‘다다다’는 ‘폭발1초전’이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1초전님은 술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폭발1초전님은 술이랑 담배를 많이 할 것 같다는 자신의 생각을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폭발1초전’은 이 후 자기의 성격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를 꺼냈고 논의는 주로 ‘폭발1초전’과 ‘quit’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다다다’는 대화에서 다소 밀려나 있었다.

많은 채팅 자료에서 이처럼 상대의 성별과 나이, 거주지, 특히 하는 일 등에 근거해 상대를 어떤 범주로 끼워 맞추고자 하는 의미 함정 현상이 발생했다. 때문에 종종 의사소통의 장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장벽으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다소 장황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채팅은 오직 ‘문자적 기호’에 의한 동시적 커뮤니케이션이다. 따라서

채팅의 의사소통 상황에는 사회적 맥락 단서가 결핍되어 있다. 사회적 맥락의 정보는 정적인 단서(static cue)와 동적인 단서(dynamic cue)를 통해 지각된다. 전자는 외모, 사무실, 개인 비서 등에서 드러나는 참여자의 사회적 속성(나이, 사회적 지위 등)을 말하며 후자는 의사소통 과정 시의 비언어적 행위 즉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마를 찌푸리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Sproull & Kiesler, 1986) 이것들은 상대의 실체를 판단하는데 좋은 근거 자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채팅은 일반적인 면대면 의사 소통에 비해 이러한 정보가 낮다.

따라서 채팅 참여자들의 사회적 실재감이 면대면 의사소통에 비해 낮다는 논의는 자연스럽다. 사회적 실재감이란 의사소통 매체가 참여자들의 신체적 존재나 비언어적 상징물들을 얼마나 실재감 있게 반영해 주느냐를 말한다(Short, Williams & Christie, 1976). 일반적으로 매체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을수록 사회적 실재감은 높는데, 채팅과 같은 컴퓨터 매개 의사 소통의 경우, 비언어적 단서들이 적기 때문에 사회적 실재감은 낮다.¹⁵⁾

채팅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은 '문자'이다. 이는 채팅이 대인 관계 의사소통의 도구로 훌륭하게 기능하는 데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인 의사소통에서 사람들은 디지털 코드(digital code)와 아날로그 코드(analogic code)를 모두 사용한다(Littlejohn, 1996:324). 디지털 코드의 특징은 자의적이며 불연속적이다. 숲 속의 거대한 초식 동물이 꿈이라 불리지만 기호와 지시대상 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말은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것(on-off)이지 그 중간은 없다. 인간 의사소통에서 가장 일반적인 디지털 코드는 언어이다. 이에 비해 아날로그 코

15) 이러한 논의들은 사회적 맥락 단서 결핍 이론(lack of social context cues theory), 사회적 실재감 이론(social presence theory)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미디어 풍부성 이론(media richness theory)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Daft & Lengel(1986)은 다양한 미디어를 '즉각적인 피드백의 능력, 이용 가능한 단서와 채널의 수, 개인화, 언어의 다양성'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기준으로 할 때 면대면 의사 소통은 가장 풍부한(richest) 매체인데 비해 컴퓨터 매개 의사 소통은 매우 빈약한(lean) 매체이다.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은 피드백이 제한적이고 이용 가능한 단서의 수가 적으며 언어는 덜 개인화되고 덜 다양하기 때문이다.

드는 손으로 공중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대상과 닮아있다. 이것은 비자의적이다. 또한 아날로그 코드는 연속성을 띤다. 아날로그 코드는 강도나 지속성 면에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on’ 또는 ‘off’라고 말할 수 없다. 아날로그 코드의 대표적인 예는 비언어적 기호들로서 놀란 표정이나 음조 등이 그 예이다. 면대면 의사소통에서 디지털 코드와 아날로그 코드는 함께 사용되며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정교한 의미를 가진 디지털형 기호들은 내용 차원을 전달하고 감정과 의미가 풍부한 아날로그형 신호들은 관계 메시지의 매체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내용 수준에서는 디지털적으로 의사소통하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아날로그적으로 소통한다.

【표1】 디지털 코드와 아날로그 코드

디지털 코드 (digital code)	아날로그 코드 (analogic code)
자의적	비자의적
불연속적(on-off, 사용 또는 미사용)	연속적(강도와 지속성의 차이 수반)
언어가 대표적인 예	비언어적 요소(놀란 표정, 어조 등)가 대표적인 예
주로 내용을 전달	주로 감정과 의미 전달
내용 수준 연구의 대상	관계 수준 연구의 대상

채팅은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문자 언어를 매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코드를 나타낼 수 있는 단서가 없다. 더구나 글은 말에 비해 이성적이고 말은 영상에 비해 이성적이며 영상은 춤에 비해 이성적이라는 서양 정신사의 ‘이성적 거리 둠’을 고려할 때, 문자 언어만으로 정서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통신 언어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이모티콘의 사용¹⁶⁾은 이와

16) 왜 이모티콘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목적에서도 비롯된다. 똑같이 인터넷 상에 사용되는 글이라 할지라도 설득이나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 게시판의 글들의 상당수가 종이 위에 쓰여진 문자 텍스트와 크게 다르

같은 디지털 코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 중의 하나이지만, 면대면 의사 소통에 비한다면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채팅에서 위와 같은 의미 함정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채팅의 의사소통 상황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친교적 목적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한 화제를 문자적 기호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해당 문자적 기호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의미 범주에 근거하여 의사소통하기 쉬운 셈이다.

다음의 예에서처럼 채팅 참여자들 중에는 그와 같은 현상을 즐기는 경우도 있었다. Shiva는 상대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성향, 성격 등을 추론하는 것이 재밌다고 말하면서 이를 자신이 채팅을 하는 주된 이유로 꼽았다.

예6) Shiva: 정답은... 그사람만 알겠지만

Shiva: 추측이 난무하는게 왠지 재미있더라구요....

경우에 따라 자신의 추측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래의 ‘그림자사랑’은 채팅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접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는데, ‘그림자사랑’은 상대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다.

예7) 그림자사랑: 글썸, 상대방이 한 말을 보면 알죠

그림자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되어....

그림자사랑:

그림자사랑: 작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쓰는 글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채팅에서 이모티콘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음성언어적 특성이 짙은 것은 이 장르가 근본적으로 정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채팅이 바람직한 대인 관계 의사소통의 도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 교섭 작용으로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추측이나 판단에 얽매이기보다는 상대의 실체를 살피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일 상대의 실체를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추측성 말하기를 즐기고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채팅을 통해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국어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4. 채팅의 ‘이미 함정’ 현상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근

오늘날 채팅은 대인 관계 의사소통의 도구로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채팅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채팅은 또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일회용 놀이갯감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채팅을 통해 진정한 삶의 공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채팅을 통한 의사소통은 주로 표피적인 수준에서의 만남에만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채팅을 해 보았거나 하고 있고 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채팅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만일 그것이 이미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의 범주에 끌어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맞춤법, 띄어쓰기의 오류’나 ‘지켜지지 않는 통신 예절’에만 초점을 두어 통신 언어를 다루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학생들이 채팅이라는 의사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그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국어교육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가 전반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편리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채팅을 전면적으로 무조건 권유할 수 없는 것처럼 채팅이 학생들을 타락으로 이끄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며 무조건 금지할 수도 없다. 채팅이라는 의사소통 범주가 갖고 있

는 전반적인 특징을 기술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친교를 목적으로 채팅을 하는 경우에 초점을 두어 채팅에서 발생하는 '의미 함정'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미 함정 현상은 상징의 세계(언어로 재구조화된 세계)에 함몰되게 함으로써 상대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상대의 실체가 상징의 세계에 가리워짐으로써 상대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오해가 빚어지며 경우에 따라 이는 실체와 전혀 상관없이 상대를 판단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는 주요한 의사소통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채팅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의미 함정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으로, 언어가 갖고 있는 불완전성에 대한 언어 의식(language awareness)의 고양이 그것이다. 인간은 실제 경험의 세계와 상징의 세계, 두 세계에서 살고 있다. 언어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 혹은 표상(representation)할 뿐이다. 제7차 화법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도 '언어와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안다'라는 항목을 통해 언어의 이러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언어가 상징의 세계이고 세계를 재구조화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본질적으로 의미론적인 불완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언어는 지도이다”라는 말을 통해 코르지브스키는 언어의 불완전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언어의 의미론적 불완전성은 크게 지도와 땅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언어는 실세계 자체가 아니며(비동일성) 실세계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비충칭성)는 것을 뜻한다(교육부, 1997:139).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사항을 단순히 지식으로 암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언어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성격을 의식(awareness)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서 소화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Andrew (1998:18)에 의하면 'LEA(language exploration and awareness)의 주요 목표는 언어 사용자의 언어에 대한 내적(internal), 메타언어적(metalinguistic) 의

식과 조절(control)의 확장인데, 그것은 언어 사용의 복잡하고 다양한 필수 요소와 기준에 대한 고도의 민감성(sensitivity)에서 파생된다.’¹⁷⁾

채팅을 할 때 참여자는 상대의 성별, 나이, 거주지, 하는 일 등의 의미 범주 내에서 상대를 성급하게 파악하기 전에 그러한 의미 범주는 실체와 같지 않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요소가 아님을 의식하고 ‘경험의 세계’와 ‘상징의 세계’를 구별해야 한다. 인간이 언어를 떠나 살 수 없는 상징적 동물인 이상 지나치게 경험의 세계에 매몰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상징의 세계에만 파묻혀 실체를 보지 못해도 안 된다. 이는 사실 채팅을 통한 의사소통을 넘어 일반 의사소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 사용의 모습에 민감하게(sensitive) 반응하고 이를 의식할 수 있는 언어 의식(language awareness) 고양 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증대된다.

의미 함정 현상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은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으로, Meyers & Meyers(1985)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의미 함정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우리는 기자적인 접근, 목록화하기,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한 양적으로 나타내기, 의사소통의 본질인 ‘내게는(to me)’을 기억해서 자신을 표현하기,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등에 주목해 볼 수 있다.¹⁸⁾

채팅을 할 때 상대의 신상 정보에 더해 ‘선생인 당신은 틀림없이 고리타분하다’, ‘영업사원인 당신은 술 잘 마시는 사람을 틀림없이 좋아한다’처럼 단정 짓거나 평가하려하지 말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때 상대의 실체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기자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등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목록화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의사는 무조건 돈이 많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의사들 중에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사진을 찾아보면 하나의 표제어가 ‘1), 2), 3)···’으로 나열되는 다양한 중

17) LEA 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신명선(2003)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8) 이 외에도 Meyers & Meyers(1985)는 ‘일반의미론적 접근’ 등을 더 들고 있다.

류의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단어가 주는 사회적, 심리적 의미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목록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고도로 추상적이고 애매한 말 대신에 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곳은 아주 멀어'라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멀다'에 대한 의미 규정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의미 규정은 다를 수도 있다. 나는 30분 이상 걸리는 곳은 멀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걸려야 먼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곳은 약 30분 정도 걸려'처럼 표현하는 것이 의미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다. 채팅의 경우 문자적 기호 외에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없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말 대신에 가능한 양적으로 표현할 때 상대의 오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의견을 표현할 때는 '내게는(to me) ~ 이리하다'처럼 표현하는 것이 좋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보통 이리하다'처럼 말함으로써 무엇인가를 범주화하려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처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표현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전형화하거나 범주화시키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인도하는 힘이 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그 말을 전형화하거나 범주화하여 해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미를 명료화하려는 자세도 중요하다. 애매하고 불분명한 표현은 상대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상대가 의도한 이미지와 내가 떠올린 이미지가 같은지 명료화시키지 않으면 역시 의미 함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채팅이 바람직한 대인 관계 의사소통의 도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대를 자신의 틀에 끼워 맞춰 이해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실체로서의 상대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팅의 경우, 그 의사소통 상황의 한계로 인해 의미 함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미 함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언어와 실체의 비동일성과 비충칭성'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채팅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미 함정 현상을 분석하고 그 국어교육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채팅에서는 그 의사소통 상황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의미 함정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채팅이 바람직한 대인 관계 의사소통의 도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미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미 함정 현상은 채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의미 함정 현상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채팅에서 발생하는 의미 함정 현상과 일상 대화에서 발생하는 의미 함정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미 함정 현상의 특성과 문제점 등을 다방면에서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한 의미 함정 현상에 대한 국어교육적 대안은 지극히 개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좀 더 정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기타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미 함정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채팅 연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채팅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다. 아직까지 채팅의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채팅이 대인 관계 의사소통의 도구로 자리를 잡은 이상, 매체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넘어 채팅 의사소통 전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채팅의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연구 없이 매체 자체의 특성에만 주목하다보면 통신 언어와 일상 대화의 언어를 단순 비교 대상으로 놓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 언어가 사용되는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배려 없이 단지 언어만을 단순 비교, 대조한다면 숲을 버리고 나무만 보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채팅 언어가 갖고 있는 맞춤법, 띄어 쓰기의 오류 및 축약 현상 등도 채팅이라는 의사소통 상황과 관련하여 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지를 먼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⁹⁾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1997), 『체7차 국어과 교육과정해설서』.
- 구본관(2001), “컴퓨터 통신 대화명의 조어 방식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10, 텍스트언어학회.
- 구자순(1999),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성 정체성과 의사소통 형태”, 한국방송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 권순희(2001), “컴퓨터 통신 대화의 언어적 특성 고찰”, 『뚝어교육』 105,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권연진(2000), “컴퓨터 통신 언어의 유형별 실태 및 바람직한 방안”, 『한어과학』 7-2, 한국언어학회.
- 권혁남 외(1998), “뉴미디어와 일상생활”, 『한국방송학보』 10, 한국방송학회.
- 김대행(199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봄학술발표대회.
- 김동환 · 이도영 · 엄은열 · 서유경(2000),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성현 · 김인철(2001),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의의와 미래”,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9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김원섭 · 윤관식(2001),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 활용의 가능성 탐색”, 『직업교육연구』 20-2, 한국직업교육학회.
- 김유정 · 조수선(2000), “새로운 매체, 새로운 젠더 논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5,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 김윤덕 · 김민기 · 권오성(2001), “컴퓨터 채팅이 아동들의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정보교육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6-2.
- 김정희(1996),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서울대 석사논문.
- 김혁조(1992),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후기구조주의적 접근, 고대 석사 논문.
- 김현주(1995), “컴퓨터 통신의 매체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34.

19) 물론 이 말은 통신에서는 맞춤법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한 현상을 무조건적인 비판의 범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 南宮 良錫(2002), “중국어 채팅언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중국어문논총』 22.
- 박기순(1997), “가상공간에서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한국커뮤니케이션학』 5,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박동근(2002), “통신언어의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기능 연구”, 『한말연구』 10, 한말연구학회.
- 박인기(2000), 『딛어교육과 미디어텍스트』, 삼지원.
- 박희정 외 3(2002), “온라인 채팅에서 아바타의 도입이 매체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 『형영정보학연구』 12-4호.
- 배진한(1995),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이 대인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석사.
- 소만섭(2000), “컴퓨터에 의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독일문학』 73, 한국독어독문학회.
- 소현진(1996),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고대 석사 논문.
- 신명선(2003), “수수끼끼의 메타언어적 성격에 대한 국어교육적 고찰”, 『딛어교육』 110, 국어교육연구학회.
- 안용주(2001), “디지털 시대의 일본인의 언어 유희”, 『어문학 연구』 11.
- 오택섭 · 김대식 · 강미선(2000),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6.
- 옥현진(2002), 국어과 매체 문식성 교육에 관한 연구, 고대 석사논문.
- 원우현 외(2002),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박영사.
- 유학수(2001), “러시아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통신어의 언어학적 분석”, 『도어노문학』 13-2
- 윤상준(1998),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조직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미치는 영향, 고대 석사 논문.
- 윤희수 외(2002), “인터넷 통신 언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웹 기반 프로그램 개발”, 『한국정보교육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7-1.
- 이석주 외(2002), 『태중매체와 언어』, 역락.
- 이승후(2002), “통신언어의 특징과 문제점”, 『채국어교육』 64,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재현(2000),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정복(2001),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특성”, 『우리말글』 22, 우리말글 학회, 2001
- 이현우(1997), “인터넷의 이용과 국민 의식의 세계화와의 함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커뮤니케이션학』 5집,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임규홍(2000), “컴퓨터 통신 언어에 대하여”, 『배달말』 27, 배달말학회.
- 임철성(2000), “컴퓨터 공개 대화방 대화의 매체언어적 성격과 대화 양식 고찰”, 『텍스트언어학』 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전병용(2002), “통신 언어의 음운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21.
- 최태룡(2000), “컴퓨터 통신과 사회적 관계의 형성”, 『척역사회연구』 8-2.
- 한범욱, 김성경(1998), “컴퓨터매개교육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한국커뮤니케이션학』 6,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Daft, R. D. & Lengel, R. H.(1986), “Organizational information requirements, media richness, an structural design”, Management science 32(5), 554-571.
- December, J.(1997), “Notes on defining of computer-mediate-communication”, CMC Magazine, Jan, <http://www.ecember.com/cmc/mag/1997/jan/december.htm>.
- Dunlop, C. & Kling, R(1991),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Academic press.
- Jones, S. G.(1995), Cybersociety: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nd Community, London:Sage.
- Littlejohn, S. W.(1996),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Wadsworth Publishing Co., 김홍규 역(1999), 『커뮤니케이션이론』, 나남출판.
- Mcquail(1987), Mass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 Sage.
- McQuail, D. & Windal, S.(1993), Communication Models: For the study of Mass Communication, Pearson Education Limited, 임상원 · 유종원 공역(2001), 『커뮤니케이션 모델』, 나남출판.
- Meyers, G. E. & Meyers, M. T.(1985), The Dynamics of Human Communication: A Laboratory approach, McGraw-Hill, Inc. 임철성 역(1995), 『태인관계와 의사소통』, 집문당.

- Richards, I. A. & Ogden, C. K.(1959), *The Meaning of meaning*, New York: Harcourt, Brace. 김영수 역(1987), 『희미의 의미』, 현암사.
- Short, J., Williams, E. & Christie, B.(1976), *The social Psychology of Telecommunication*, London:Wiley.
- Smith, M. A. & Kollock, P.(1999), *Communication in Cyberspace*, Routledge, 조동기 역(2001), 『사이버 공간과 공동체』, 나남.
- Sproull, L. & Kiesler, S.(1986), “Reducing social context cues: electronic mail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anagement science* 32(11), 1493-1512.

<초록>

채팅의 ‘의미 함정’ 현상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근

신 명 선

채팅은 문자적 기호에 의한 동시적, 즉각적, 비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종류의 의사소통이다. 채팅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채팅에서는 종종 의미 함정 현상이 일어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채팅에서 발생하는 의미 함정 현상을 분석하고 그 국어교육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언어가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치 중의 하나는 ‘범주화’ 및 ‘분류화’이다. 일반적으로 범주화와 분류화는 현실을 이해하는 용이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로 명명화된 대상을 언어의 범주 내에서만 이해하고자 한다면 실체와 당연히 거리가 생기게 된다. 이처럼 어떤 대상을 그 실체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부여하고 있는 언어적 코드(code) 속에서만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을 의미 함정(semantic trap)이라고 부른다. 의미 함정은 일반적으로 대상의 실체를 흐릿하게 하는 효과, 즉 표백 효과(blurring effect)를 유발한다.

채팅에서 발생하는 의미 함정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의미 함정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미 함정’ 현상으로 보았다. 첫째,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사는 곳, ‘하는 일(선생님, 의사, 고등학생, 검사, 강패, 날라리 등)’에 근거해 일정한 범주 안에서 파악했음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둘째, 그러한 파악의 결과(범주화)로 그 사람의 행위나 말에 대한 일정한 판단 및 단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그러한 판단 및 단정의 결과가

의사소통 장벽(communication gap)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장벽은 의사소통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정의하도록 한다.

실제 채팅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채팅에서는 의미 함정 현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채팅이 진정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의미 함정 현상에 대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국어교육적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으로, 언어 의식(language awareness) 고양 교육의 강화이다. 둘째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으로, ‘기자적인 접근, 목록화하기,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한 양적으로 나타내기, 의사소통의 본질인 ‘내게는(to me)’을 기억해서 자신을 표현하기,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등이다.

【핵심어】 채팅, 의미 함정, 의사소통 상황, 의사소통 장벽, 국어 교육

<Abstract>

Korean Education's Approach about the status quo of Semantic trap in Chatting

Sin, Myeong-seon

Chatting is the new style communication in the point of simultaneous, immediate, non-face-to-face communication using character symbol, which cause often semantic trap. This paper analyze semantic trap which happened in chatting and try to present the alternative proposal of Korean education aspect.

'Category' and 'classification' is the typical way of showing reality in language. Generally 'category' and 'classification' is the easy means to understand reality but language don't show reality itself. So understanding the objects and worlds in the language category cause gap between the language and the reality. Semantic trap is the comprehension of object and worlds in the language code made by our society and cause blurring effect that obscure the reality.

To analyze the semantic trap in chatting, it is necessary to define which case is the semantic trap, this article said three condition to consider semantic trap. First, the case of comprehending someone limited in the language category based on age, sex, place to live and job. Second, the case of expressing fixed judgment and decision based on that prescribed category. Third, that regular judgment and decision cause the communication gap which obstruct the smooth communication process.

The analysis result of the chatting material shows the semantic trap happened frequently. So, the education treat is needed to revise a chatting as a authentic communication tool. This paper proposed two things. First, general and macro aspect which means the reinforcement of language awareness.

Second, detail and micro aspect which includes ‘approach like reporter’, ‘making category’, ‘not using ambiguous word’, ‘expressing for <to me>’ etc.

【key words】 chatting, semantic trap, communication situation, communication gap, Korean education